



우리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다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일장입니다.



매거진 〈새벽종〉 e-Book



교보문고



알라딘



밀리의 서재



에스24

Magazine

새벽종



우리, 나눠봄

함께 만드는
행복한 새마을 공동체

2024 07+08 제15호

새벽종 소리
'우리'의 힘, '함께'의 가능성
공동체운동의 실천과 성과

새마을 줄인
K-콘텐츠 속 K-새마을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 탐방기

새마을 인터뷰
부산 수영구협의회
전북 완주군새마을회

- ▶ [youtube.com/@saemaul](https://www.youtube.com/@saemaul)
- ◎ [instagram.com/letssaemaul](https://www.instagram.com/letssaemaul)
- ▣ [facebook.com/letssaemaul](https://www.facebook.com/letssaemaul)
- ☞ blog.naver.com/letssaemaul
- 📍 pf.kakao.com/_zNxxnT

우리, 나뉘봄

새마을운동은 '우리의 힘, 함께'의 가치로 마을과 사회,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며
국가발전을 견인했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지금이 아닌 미래를 위해,
우리 마을을 좋은 마을로 가꾸고 어려운 이웃을 내 가족처럼 돌보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역할입니다.
이웃을 위한 나눔과 돌봄, 소통과 교류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에 새마을운동이 앞장서겠습니다.



CONTENTS

2024 07+08
제15호



발행일
2024년 7월 25일

발행처
새마을운동중앙회

발행인
김광현

기획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
T. 031-620-2371 ~ 5
F. 031-620-2379

편집·디자인
(주)디앤씨컴퍼니

광고·구독·주소변경
T. 031-620-2373
magazine@saemaul.or.kr

문자에 게재된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THEME

함께 만드는
행복한 새마을 공동체

06 새벽종 소리
'우리'의 힘, '함께'의 가능성
공동체운동의 실천과 성과

10 반가운 울림
국내 최초 '새마을인명구조단' 창설
새마을정신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다
이강우 911수색구조단장



14 함께 공감
협동과 연대 그리고 나눔으로 만드는 행복한 공동체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장

16 새마을 줄인
K-콘텐츠 속 K-새마을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탐방기



20 새마을 타임즈
새마을정신과 지혜로 잘사는 공동체를 이룬다

22 새마을 인터뷰 ①
함께 만들어 가는 따뜻한 사회
부산 수영구협의회



26 새마을 인터뷰 ②
'십시일반' 상생의 온기를 전하다
전북 완주군새마을회

30 청년, 미래 그리고 새마을
함께 뛰고 웃으며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다
경남 통영시 청년새마을연대



34 지구촌새마을운동
지구촌새마을운동으로 큰 미래를 그리다
탄자니아·잠비아·타지키스탄 초청연수생 인터뷰

38 희망 에세이
작은 칭찬이 모여 긍정의 힘이 되다
서로를 응원하며 행복으로 나아가는 새마을공동체

40 섬표 여행
자연과 함께하는 여름철 최고의 힐링 여행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44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환경을 지키는 방법
냉장고 파먹기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46 새마을 포커스
제27대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선출



영상으로 보는
중앙회장 취임인사

58 새마을 라운지

'우리'의 힘, '함께'의 가능성 공동체운동의 실천과 성과



현대사회는 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달로 삶이 윤택해진 반면, 여전히 우리 주변 보이지 않는 곳에는 따뜻한 손길과 관심,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다. 이들을 보듬으며 나눔, 배려, 연대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사진. 새마을운동중앙회

더 큰 관심으로 주변을 살피다 새마을 사회안전망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부산 기장군새마을회 홀몸 어르신 이불세탁

함께 가는 길은 때론 더디 간다 해도 그 자체로 아름답다. 어려움은 나누고 기쁨은 배가 되도록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 사는 세상은 더 충만해진다. '우리'의 힘, '함께'의 가능성으로 지난 54년 동안 수많은 새마을지도자와 회원들은 지역 사회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보듬고 보살펴 왔다. 이들은 상생의 공동체인 새마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며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들의 땀이 따뜻한 사회를 이뤄가는 희망이 아닐까.

2023년 전국 기준

| | | |
|--|---|---|
| 다문화 지원 354회 8,937명 | 홀몸 어르신 돌봄 2만 1,358회 22만 4,364명 | 소년소녀가장 돕기 1,307회 2만 1,648명 |
| 집 고쳐주기 1,575회 2,186가구 | 김장 담가주기 1,986회 122만 7,859포기 27만 6,839가구 | 연탄 나누기 238회 / 31만 7,373장 1,434가구 |
| 밑반찬 나누기 5,349회 / 17만 2,929가구 | 명절·기념일 나눔 4,924회 54만 3,274명 | 기타 나눔·돕기 사업 3,184회 / 11만 6,750명 5만 6,440가구 |

배려와 이해로 더 따뜻하게 주민참여형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 확대



충남 공주시새마을회 마을공동체 활동

좋은 가정이 좋은 골목을 만들고, 좋은 골목이 좋은 동네를 만들고, 좋은 동네가 좋은 지역을 만들고, 좋은 지역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 좋은 이웃 만들기는 주민이 참여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새마을운동으로 시민의 손으로 도시와 마을을 바꾸어 나가는 사업이다. 지역공동체를 위해 새마을운동은 주민의 생활 양식과 생애주기, 지역 특색을 고려한 사업으로 안정적인 이웃 관계를 만드는 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2023년 전국 기준

| | |
|---|--|
| 마을공동체 운동 2,926개소 3만 9,539명 | 공동체 활성화 교육 704회 / 2만 1,204명 공동체 관련 캠페인 1,223회 / 2만 1,189명 |
|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운영 28개소 | 태극기 달기 운동 23만 9,986개 |
| 방법, 스쿨존, 안전지킴이 봉사 6,122회 / 4만 9,557명 | 새마을군집기 관리 1,570개소 1만 9,922개 |
| 휴경기 경작 457만 3,005명 / 97만 5,738㎡(29만 5,161평) | |

더 멀리 보고 내일을 준비하다 독서생활화로 창조적 지역문화 창달



부산광역시새마을회 피서지 문고

새마을문고는 도서 보급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알리고 의식 수준을 높였으며, 산업화에 불씨를 지피자원이 부족한 나라도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독서운동은 지금의 변화보다 다음 세대의 번영과 공동체의 발전에 더 집중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이런 독서운동을 통해 창조적인 생각과 아름다운 문화의 꽃이 피어날 내일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23년 전국 기준

| | | |
|--|---|---------------------------------------|
| 새마을적은도서관 1,169개소 136만 9,121명 | 피서지 독서문화시설 122개소 1,208일 | 독서퀴즈대회 60회 5,471명 |
| 이동도서관 차량 22대 1,405개소 순회 40만 3,394명 | 독서회(대학) 89개 소모임 828회 | 시도 독서문화행사 17개 시도 32,632명 |
| 독서문화운동가 양성 13개 시도 289명 수료 | 길 위의 인문학사업(문학기행) 145회 / 5,259명 | |
| 재능기부동아리 143개 동아리 1,534회 | 대동경기 제43회 국민독서경진대회 • 종합평가 운영 부문 251개소 선정 • 독후감 3,540편, 편지글 1,187편 시상 • 독서문화유공자 195명 | |

소통하고 이해가 가득한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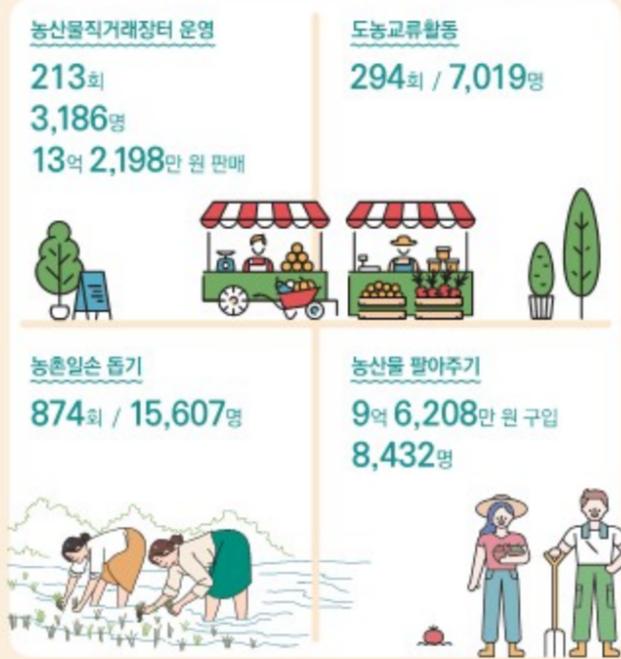
세대, 지역, 도농 간 교류 협력 확대



서울특별시새마을회 마을 농가 일손 돕기

공동체가 발전하려면 계층 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대화가 필요하다. 이는 공동체를 화합과 상생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 새마을운동은 다양한 소통 및 교류 사업으로 세대, 지역, 도농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상호보완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2023년 전국 기준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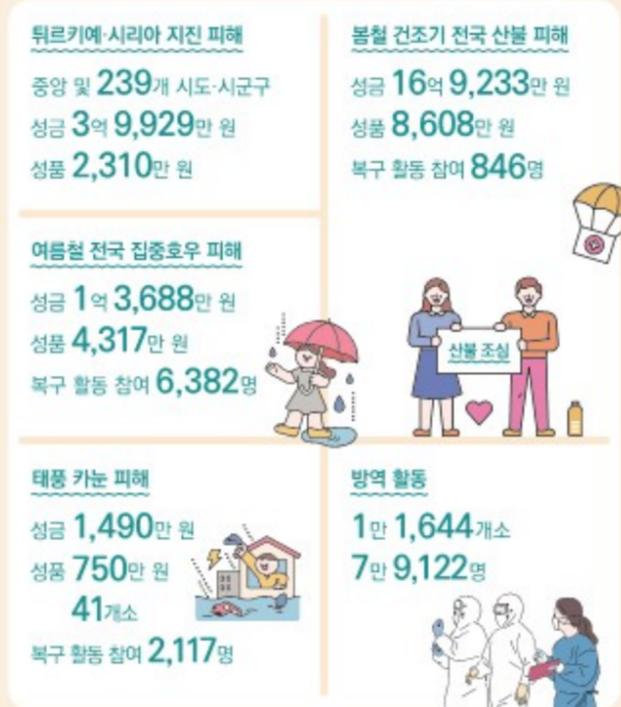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재해 예방·복구 활동



전라남도새마을회 건강한 우리동네 방역 활동

재난·재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동체가 함께 예방과 복구에 나서는 것. 새마을운동은 지역·시기별 '재난재해 예방·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지자체, 유관 기관과 공조로 효과적인 예방·복구 활동 체계를 마련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전국 새마을조직을 통해 신속히 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구호물품을 지원한다.

2023년 전국 기준



공동육아 실현으로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새마을작은도서관이 운영하는 놀봄학교



부산 기장군새마을회 슬기로운 놀봄교실 수업

돌봄 위기는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적 위험 중 하나이다. 돌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침해당하고 삶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부모, 학교, 이웃이 모두 힘을 합쳐야 온전히 한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46% 이상 차지하고 있는 요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새마을운동가 '놀봄학교'를 통해 공동 돌봄을 실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키우는 육아 공동체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놀봄학교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만든 돌봄 프로그램이다. 전국 새마을작은도서관 15곳에서 지난 6월부터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놀봄학교를 시범운영 중이다. ☺

놀봄학교 운영 현황

| 지역 및 도서관명 | 프로그램명 | 운영 기간 | 횟수 및 시간 |
|--------------------------|-----------------------|-----------------|---------------|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촌센트럴 작은도서관 | 고촌센트럴 환경지킴이 | 6월 3일 ~ 8월 5일 | 주 2회(회당 2시간) |
| 인천시 동구 숭실작은도서관 | 함께 가볼래 숲속 이야기숲 | 6월 1일 ~ 8월 1일 | 16회(회당 2시간) |
| 대전시 서구 길마1동도서관 | 함께하는 놀이 이야기 | 6월 3일 ~ 8월 5일 | 20차시(10회 운영) |
| 울산 중구 학생동 작은도서관 | 미래의 우주학자와 함께하는 우주 이야기 | 6월 1일 ~ 8월 31일 | 매주 2회(회당 2시간) |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새싹작은도서관 | 책과 함께하는 우리들 이야기 | 6월 1일 ~ 8월 1일 | 10회(회당 2시간) |
| 강원도 춘천시 작은도서관 | 3D펜 교육 쑥쑥참여의 교실 | 7월 29일 ~ 8월 8일 | 매주 4회(회당 2시간) |
| 강원도 강릉시 작은도서관 | 한자교실, 수학교실, 영어교실 | 7월 ~ 8월 | 매주 4회(회당 2시간) |
| 충청북도 청주시 어울림도서관 | 배설배설 악단 | 6월 ~ 7월 | 매일 |
| 충청북도 증평군 장물 작은도서관 | 독서학습 지도 및 돌봄 | 6월 1일 ~ 8월 1일 | 매일 |
|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도서관 | 독서지도, 도자기 제작체험 | 6월 1일 ~ 7월 31일 | 매일 |
| 전라북도 완주군 용궁 작은도서관 | 책놀이교실 나도작가 | 6월 1일 ~ 8월 31일 | 10회(회당 2시간) |
| 전라남도 무안군 경남아너스빌도서관 | 독서지도 및 돌봄 | 6월 3일 ~ 8월 2일 | 5회(회당 2시간) |
|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파크 도서관 | 등세 놀봄학교 | 6월 1일 ~ 7월 27일 | 10회(회당 2시간) |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새마을도서관 | 독서지도 및 돌봄 | 6월 1일 ~ 8월 1일 | 10회(회당 2시간)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장전리해마루 작은도서관 | 수확 및 기초바둑 | 6월 1일 ~ 12월 30일 | 주 2회(회당 2시간) |

국내 최초 '새마을인명구조단' 창설

새마을정신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다

이강우 911수색구조단장

이강우 단장은 1981년 국내 최초 민간 구조단체인 '새마을인명구조단'을 창설하면서 인명구조에 인생을 바치기 시작했다. 사비까지 털어가며 국내외 재난·재해 현장에 두 팔 걷고 나선 지 40여 년, 그동안 인명구조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기도 했다. 힘들지만 남을 위해 땀을 흘릴 때가 가장 기쁘다는 이강우 단장을 만나 공동체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가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이원복 사진. 홍승진



튀르키예 정부가 지원한 헬기를 타고 재난 현장에 도착한 911수색구조단

시민을 위해 만든 새마을인명구조단

지금은 '119' 숫자 세 개만 누르면 언제 어디든 달려오는 119구조대가 있지만,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19는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 중심이었기에 당시 우리나라의 응급환자 이송 체계는 전무했다. 다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환자를 직접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거나 택시를 타고 가야만 했다. 그마저도 6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병원이 문을 닫았고, 통금제도까지 있던 때라 야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아픈 사람은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이강우 단장. 그는 1981년 12월 우리나라 응급환자 수송체계의 시초가 된 새마을인명구조단을 창설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데 이바지했다. '군대 전역 후 예비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사비를 털어서 1969년 향토예비군 군악대를 조직했습니다. 실력이 무척 좋았죠. 그러다 보니 정부 주요 행사에 초청돼 애국가와 새마을노래를 연주하는 일이 많았고 유명 인사와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전경환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과 친분이 생겼고, 1980년 새마을운동본부 출범 후 전경환 전 회장의 요청으로 새마을운동중앙

본부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는 일을 했던 이강우 단장. 사회적 인프라가 척박한 시절 그의 눈에는 국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이디어가 화수분처럼 떠올랐다. 당시 사람들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일이 큰 문제였다. 하루에 몇천 명이 연탄가스에 중독되기도 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인명구조단의 창설을 건의했다. 예산이 내려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터라 기다릴 수 없었던 이강우 단장은 자신의 집을 팔았다. 5,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직접 마련했고 구급차 5대(일반 구급차 3대, 25인승 구급차 2대)를 샀다. 차량용 무전기도 설치했다. 당시로서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그렇게 새마을인명구조단이 창설 후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면서 전국에 지부가 173개까지 만들어졌다. 운용되는 구급차 규모는 200대였으며, 단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인명구조 훈련도 받고 올 만큼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 결과 응급환자 30만 명 무료 수송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새마을정신으로 구조 현장에 뛰어든다

새마을인명구조단이 유명해지면서 이강우 단장을 시기하거나 음해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강우 단장은 자발적인 구조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치고자 조직을 개편했다. 군인, 경찰 출신뿐만 아니라 의사, 교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이강우 단장과 함께했다. 이들은 국내 수해 현장 등 인력이 필요한 많은 곳에 달려갔다. 이외에도 미아 찾아주기 운동, 교도소 수감자 교화, 재난 응급의료 전문 인터넷 방송국 911TV 개국,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공동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다.

911수색구조단의 활동은 해외에서 두드러졌다. 본격적으로 해외 현장에 나간 것이 바로 2001년 1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7.7 규모의 강진이 일어났을 때다. 당시 2만 5,000명이 죽고 16만 6,000명이 다쳤다. 가만히 있을 수 없던 이강우 단장은 6명의 대원과 함께 국립의료원의 의료 봉사단에 함께해 현지에서 자발적인 구조 활동을 시작했다. 그렇게 2004년 스리랑카, 2005년 파키스탄 대지진,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2011년 튀르키예 반 지진, 2017년 멕시코 중부 대지진, 2018년 라오스 댐 붕괴 사고, 2019년 필리핀 알베이 태풍 피해, 2022년 필리핀 루손섬 지진,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현장 등 총 14개국에서 인명 구조와 구호 물품 지원,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수많은



2023 대한민국자원봉사자 대상에서 받은 국민훈장 '석류장'

구조 현장을 경험했지만, 이강우 단장은 그중에서도 2004년 스리랑카 구조 현장을 꼽는다.

"당시 지진해일에 휩쓸린 사람이 많았어요. 현장은 정말 참혹했죠. 시신이라도 찾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구조대원 30명과 수중 구조와 방역 활동에 전념했죠. 구조 활동을 마치고 방역기 10여 대도 기증했죠. 현지 주민들이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방역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이강우 단장은 한 달 후 다시 스리랑카 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었다. 스리랑카 정부에서 911수색구조단이 다시 와 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이번에도 지원 없이 20여 명의 대원과 구조 장비를 챙겨 현장에 달려갔다. 이를 계기로 당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대사관에 초청되면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고, 911수색구조단 단원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다.



구조 현장에서 지시하는 이강우 단장



1981년 12월 5일 새마을인명구조단 발대식



구조 활동 계획을 설명하는 이강우 단장

언제나 나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강우 단장은 한평생 인명구조에 모든 것을 쏟으며 남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5일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열린 2023 대한민국자원봉사자 대상에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40년 넘는 세월 동안 민간 구조 활동을 이어오면서 힘든 일이 많았죠. 새마을인명구조단이 유명해지니 저를 모함하거나 구조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남에게 칭찬받으려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훈장을 받으니까 그동안 겪은 고생이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강우 단장은 직접 구조 현장에 나설 뿐만 아니라, 젊은층의 인명구조 인력 양성에도 힘을 예정이다. 학생 때부터 인명구조 전문 인력으로 육성해 우리나라의 재난-재해 예방과 안전 체계 확립에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이다. 더 나아가 해외에 인명구조 센터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처럼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 내 여러 지역에 인명구조 인력 양성 거점을 만들어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겠다는 것이다.

"영어 단어 중에 'Foundatio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토대, 기

초'라는 뜻도 있지만, '복지기관이나 재단'을 뜻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우리 사회의 기초라는 의미예요. 새마을운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새마을운동을 통해 사람들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부 문화도 생겼어요. 저는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는 것보다, 우리 국민의 인식을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시켰다는 게 더 큰 수확이라고 봐요."

이어 힘이 닿는 날까지 구조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강우 단장.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기원하며 위급 상황 시 행동 요령도 강조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당황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딱 3초만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피신해야 하는지, 소화기나 심장제세동기(AED)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또렷하게 생각날 겁니다. 잠깐 생각한다고 해서 일이 더 커지지 않아요."

민간 구조단을 만들고 40여 년간 국민의 안전에 힘써온 이강우 단장.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웃을 우선시한 그의 마음이 우리나라를 넘어 지구촌 많은 이들의 생명을 지켰고, 나아가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강우 단장의 노력이 앞으로도 모두가 잘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 원동력이 되어가기를 바란다.👉

협동과 연대 그리고 나눔으로 만드는 행복한 공동체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국가 간의 전쟁,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 등이 점점 더 빠르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직시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한다.

글.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일액원 원장, 작가



● 재난의 연속, 위태로운 삶 우리의 현실과 과제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전 지구가 몸살을 앓았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재난이 끊이지 않는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는 점점 다양화, 대형화 되는 추세이고 전쟁까지 인간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발생 당시 영상에는 바로 눈앞에서 한순간 수많은 생명과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온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은 어떤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는 제네바 협약을 비롯해서 부

녀자와 노인을 향해 서슴지 않고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얼마 전 지진이 흔들리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 강진을 보고 튀르키예 지진 영상을 본 사람이면 섬뜩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이런 자연재해 말고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인재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고들이다. 이태원 참사, 화정동 아파트 붕괴, 화성 공장 화재, 차량 돌진 사고까지 너무나도 쉽게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이불빨래 봉사에 나선 대전광역시새마을회

●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길 새마을운동의 협동과 연대 정신

이처럼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상에서 과연 나만 행복할 수 있을까? 다행히 아직 우리 사회는 인정이 넘치는 듯하다.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국민이 이재민을 돕고자 수십억, 수백억의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구호 현장에서 봉사의 손길을 펼쳤다. 코로나19 시기에 혈액이 부족하다는 재난안전문자에 긴 헌혈 행렬이 이어졌던 것처럼 서로 돕는 연대와 협력의 힘은 공동체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연대와 협력은 그 옛날 호모사피엔스가 자기보다 힘이 강한 네안데르탈인을 이기고 생존할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 한다. 이것은 바로 새마을운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협동, 연대 정신과 같다. 앞으로 재난이 일상화되는 세상에서 연대와 협력은 더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서로 돕는 협동으로 이기적인 나보다 우리라는 이타적인 나눔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기부와 봉사, 헌혈은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지구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여기에 생활 속 나눔을 함께 실천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필자는 생활 속 나눔 실천으로 '다(多) 소(小)운동'을 제안한다. 이산화탄소 대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의식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많이 걷고 덜 먹고 덜 소비하는 습관으로 변화해 보자.

● 함께하는 나눔 실천으로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불교 경전인 '백유경'에 나오는 우화다. 마을 잔치를 앞두고 한 사람이 손님에게 따뜻한 우유를 대접하고자 한 달 동안 어미젖소를 새끼와 떼어 놓고 젖을 짜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날마다 새끼가 젖을 먹게 하고 남은 젖을 짜서 이웃과 나누었으면 마을 사람 모두가 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비유는 재산을 많이 모은 후에 세상에 나눠주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 될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나눔 수 있을 때 나누어야 함을 깨우쳐 준다. 혹시 '다음에' 하고 미루고 있지 않은가. 끔찍한 재해와 전쟁, 대형 사고로 파괴되는 지구 공동체를 무력하게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재난재해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생존을 위해서도 함께 잘살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 '함께' 기부, 봉사, 헌혈,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



대구 서구새마을회의 사랑의 밑반찬 나눔활동

K-콘텐츠 속 K-새마을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탐방기

새마을운동 교육의 산실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의 또 다른 모습, 바로 K-콘텐츠 속 최고의 핫플레이스이다.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

K-콘텐츠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영장산 골짜기에 자리 잡은 연수원의 숲세권 환경은

그야말로 분당 도심 속 숨겨진 보물 같은 장소이기에 연수생과 방문객들이 탄성을 내뿜는 곳.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 최적의 교육시설을 갖춘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의 매력을 살펴보자.

글. 편집실 사진. 홍승진



정문에서 본관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자리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은 푸른 초목으로 둘러싸여 수도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한다. 정문에 진입해 본관까지 이어지는 언덕길을 오르는 동안 가로수와 새마을기가 방문을 환영하는 듯 펼쳐진다. 본관에 다다랐을 때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은 바로 드넓게 펼쳐진 잔디운동장. 당장이라도 달려보고 싶을 만큼 넓은 잔디운동장은 체육대회와 활동적인 행사의 메인 장소로 적합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본관 건물 옆쪽의 돌뜰광장, 등나무 쉼터와 작은 연못은 가장 아름다운 휴식 공간으로 손꼽힌다. 곳곳에 사색을 즐기며 걷기 좋은 산책로와 친환경 캠핑장도 있어 여유를 만끽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다.



시원한 그늘이 있는 등나무 쉼터



비밀의 정원 같은 연못광장

K-Pop 아이들이 찾는 잔디운동장



단상과 야외 화장실, 샤워실이 갖춰진 잔디운동장

최근에는 잔디운동장이 인기 아이돌그룹 '더 보이즈'가 출연한 웹예능 'THE BOYZ(더보이즈) 더비대학교 대동제'에 등장했다. 영상에서는 넓은 잔디운동장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돌계단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THE BOYZ'
(THE BOYZ(더보이즈) 더비대학교 대동제 1~2부)



1부



2부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새마을역사관



약 340명을 동시 수용하는 구내식당



도심과 자연,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분당 그린피아골프장



각종 음료와 새마을운동 기념품을 판매하는 카페 두레

수도권 내 최적의 교육시설

연수원은 강의와 연수, 교육 등에 필요한 주요 시설을 갖췄다. 470석 규모의 대강당, 7개의 강의실, 세미나실, 340석 규모의 식당, 47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숙소) 등이 있다.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한 교육부터 지구촌새마을지도자를 위한 초청연수, 새마을의 날 기념식 등 주요행사가 연중 계속된다. 특히 접근성 좋은 수도권에 천혜의 자연환경과 대규모 교육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관공서,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이용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약 470석 규모의 대강당

대학교 캠퍼스의 분위기와 감성이 있는 곳

연수원 속 숨겨진 휴식 공간인 어울목 벤치와 대형스크린시설을 갖춘 강의실은 패션브랜드 르꼬끄 스포츠의 광고 영상 배경으로 등장한다. 대학교 캠퍼스 같은 배경이 등장인물들의 만남을 더욱 설레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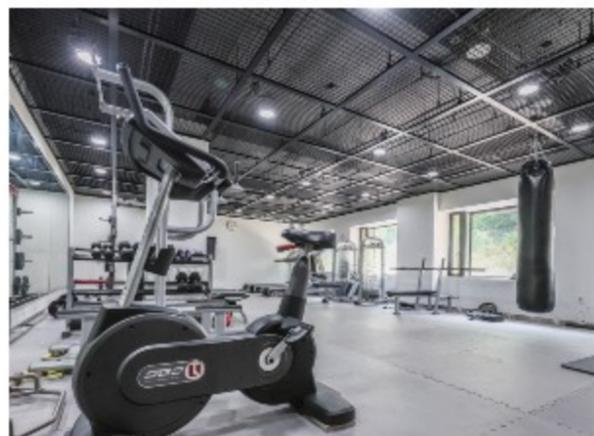
강의동과 식당 사이의 휴식 공간 어울목 벤치



깔끔한 인테리어와 대형스크린시설을 갖춘 4강의실



르꼬끄 스포츠 CF
《#울거을 꼭너와 - EP1. 우리는 프랑스어 수업에서 만났다》



다양한 운동 기구가 구비된 헬스장

찾아오는 이들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생각하다

많은 인원이 찾아오는 교육시설답게 연수원 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다. 새마을역사관 옆 분당 그린피아골프장은 102개 타석(2-4층)의 연습장과 9홀 Par3 코스 그리고 편의점과 골프용품샵까지 갖춰져 있어 주말이면 강남, 송파, 판교 등 인근 지역 주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행사와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에게는 강의동 옆에 있는 카페 두레가 최고 인기다. 각종 음료뿐만 아니라 새마을기와 모자, 조끼, 텀블러, 배지 등 이른바 '새마을 잇템(It Item)'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외에도 넓은 주차장과 헬스장, 휴게실 등 연수원을 방문한 이들에게라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 K-콘텐츠 열풍을 타고

앞으로도 더 많은 K-콘텐츠에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의 모습이 등장할 예정이다. 오는 9월 개봉을 앞둔 영화 《베테랑 2》와 현재 제작 중인 영화 《미스트》(가제)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방영될 드라마 《멜로무비》,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가제) 등이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촬영을 마쳤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영상에 등장할지 기대 보자.

• 영화

《베테랑 2》
(출연: 황정민, 정해인, 오달수, 장유주 등)
2024년 9월 개봉 예정

《미스트》(가제)
(출연: 권선영, 권유리, 이설, 기소유 등)
개봉일 미정

• 드라마

《멜로무비》
(출연: 박보영, 최우식, 이준영 등)
넷플릭스 방영 예정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가제)
(출연: 주지훈, 정유미 등)
tvN 방영 예정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은 국민 의식을 선도하는 정신 교육 기관으로서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에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각종 강의실과 운동장, 생활관(숙소) 등은 관공서,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사회단체, 동우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신청만 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새마을운동중앙회 행정지원국
전화 : 031-620-2355 / 010-5314-7801
메일 : sucti@kakao.com

▼ 시설 현황 ▼ 이용 절차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시작된 '잘살기 운동'이다. 활동은 각종 문서와 편지, 성공사례 원고, 사진과 영상 등으로 제작했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성공적인 농촌 부흥의 원형을 보여주는 기록유산으로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6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2024년 '새마을 타임즈' 코너에서는 한국 농촌 근대화의 실록인 새마을운동기록물 중 만화 이야기를 각색해 전하고자 한다.

다시 보는 새마을운동 이야기 ep. 3

새마을정신과 지혜로 잘사는 공동체를 이룬다

경기 포천시 가산면 우금1리 이강규 지도자

가난과 흉년으로 살기 어려웠던 우금1리가 새마을사업 시작 3년 만에 자립을 이루고, 1977년 호당 평균 소득 183만 원을 기록하며 부자 마을로 거듭났다. 놀라운 점은 동전 한 푼 모이지 않고, 오로지 주민들의 성실함과 노력 그리고 슬기롭고 헌신적인 지도자의 리더십만으로 이뤄진 결과라는 것이다.

일러스트. 정재은



#1.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 공동체 정신

남의 집 곁방에서 태어났을 만큼 가난한 집의 외동아들로 태어난 이강규 지도자. 소아마비를 앓으며 몸이 불편했지만 학창 시절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서울 숭실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편하게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야간에 문맹자를 가르치며 한글 계몽운동에 나섰다.

"장학금으로 하숙하며 편하게 나 혼자만 공부할 게 아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사범대학을 거쳐 1963년 풍문여자중학교 교사가 되었고, 뜻 있는 일을 하고자 서울 구로동 빈터에 천막 교실을 만들어 청소년 중등 구락부*도 운영했다. 교사 봉급은 몽땅 구락부 운영비로 지출했다. 비록 천막 교실이었지만 직접 연주회와 연극을 열거나, 교지 <앞날>을 발간하면서 3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구락부: 동호회 또는 동아리, 클럽의 일본식 표현



「사랑의 돌발길」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2.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위한 농촌계몽운동

잠시 고향에 돌아온 어느 날, 이강규 지도자는 흉년을 베틀다 못해 한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는 주민을 마주친다. 이를 안타깝게 본 이강규 지도자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농촌계몽운동에 나선다. 그는 1970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선출됐고, 마을 조직을 만들어 다양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던 중 마을에 교량과 제방을 만들라며 군청에서 시멘트 550포와 철근을 1톤이 내려왔다. 문제는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없었다는 것. 이강규 지도자는 기발한 대안을 제시한다.

"마을 개울에는 자갈(골재)이 무진장 묻혀 있소! 여러분은 주워 모으기만 하시오."

주민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개천에 나가 자갈을 모았고, 이를 팔아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 그렇게 주민들과 합심해 포천에서 제일 큰 '마치미교'를 완공했다.

#3. 주민의 자조 정신을 일깨운 지도자

다리를 만든 우금1리 주민들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새마을회관과 공동목욕탕 건설, 수도 가설, 지붕 개량 사업 등을 이루면서 마을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퇴비중산 운동 때는 목표량의 341%(약 1,572톤)을 달성하며 경기도에서 우승해 포상금을 받았다. 이강규 지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득 증대사업과 마을 기금 조성에 나섰다.

"새마을 사업이란 주어진 여건을 연구하고, 부존자원을 협동으로 개발해 소득을 높이는 데 참뜻이 있습니다."

먼저 우금 저수지에 유료 낚시터를 개장하고, 산림계와 흥농계를 조직해 공동사업을 운영하며 소득을 높였다. 기금이 마련되자 마을회관을 3층 다목적종합회관으로 확장하고 회의실, 도서실을 만들었다. 가난했던 마을이 자립을 넘어 10여 년 만에 쾌적한 주거 환경과 문화시설을 갖춘 부자 마을이 됐다. 이 모든 것이 새마을정신으로 주민들을 일깨운 이강규 지도자와 마을주민들의 노력과 희생과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함께 만들어 가는 따뜻한 사회

부산 수영구협의회



부산 수영구협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닿도록 애정 어린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수영구 10개동 협의회장과 광역회원들이 활동 중인 '똑딱이봉사단'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단순히 집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수리하는 사업들을 펼치며 '함께'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글. 최해진 사진. 최영대



임병석 부산 수영구협의회장

연장을 든 슈퍼히어로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북쪽으로 3킬로미터 떨어진 곳. 하늘을 덮은 수십 개의 전깃줄 아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백백하게 들어선 조용한 동네 망미동이 이른 아침부터 북적인다. 말소리를 따라 언덕을 오르자 보이는 반가운 녹색 조끼들. 등에는 '수영구 똑딱이봉사단'이라고 적혀 있다. 부산 수영구협의회 산하의 수영구 똑딱이봉사단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집수리를 돕기 위해 2015년 3월 결성된 단체로, 매년 20가구 내외의 집을 손보고 있다.

"아침부터 역수로 덩다 마." 한때는 싱크대였을 나뭇조각들이 분해된 채 봉사자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한 차례 작업이 끝나자 봉사자들은 삼삼오오 그늘에 모여 앉아 땀을 닦아낸다. 푹푹 찌는 더위에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이건만, 봉사자들의 얼굴엔 은은한 미소만 가득하다. 작업을 총괄하던 임병석 수영구협의회장도 그제야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오늘은 망미동에 있는 두 집을 수리해요. 두 집 다 홀몸 어르신이 거주하는 집이라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곳들이예요. 이 집은 주방과 다락방의 도배를 새로 하고, 장판도 갈 거예요. 싱크대도 교체할 거라 오전에 기존 싱크대를 철거해 줘야 하죠. 그래야 오후에 싱크대 전문 봉사자들이 와서 설치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집은 방과 거실의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할 거예요."

집수리 대상자 선정은 수영구청과의 협력으로 이뤄진다. 우선 동네 주민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각 동주민센터의 복지과에서 도움이 필요한 집들의 목록을 추려 구청에 보고한다. 그 후 복지과 직원과 수영구 똑딱이봉사단이 팀을 이뤄 현장 답사를 다닌다. 목록에 있는 모든 집을 방문해 지원이 필요한 정도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기록한다. 이렇듯 공정한 과정을 거쳐 대상지가 선정되면 봉사단은 자체 회의에 들어간다. 집 간의 거리와 작업 시간을 계산해 가장 효율적인 일정을 세운다.



부산 수영구협의회 '똑딱이봉사단'



똑딱이봉사단으로 활동 중인 수영구 10개동 협의회장들

상생을 부르는 배려하는 마음 😊

수영구 똑딱이봉사단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16일간 총 17개의 집을 수리했다. 봉사자들이 평일에는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봉사 활동은 주말에만 이뤄진다. 실질적으로는 16일이 아닌 불과 6일 만에 17가구를 보수하는 셈. 하루에 2곳에서 많게는 4곳까지 작업한다. 도배와 장판, 싱크대와 싱크볼 교체가 주를 이룬다. 간혹 욕실의 타일을 보수하거나 현관의 페인트 칠을 새로 하기도 한다. 하나같이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일견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이나 임병석 회장은 괜찮다며 아주 자신 만만하다.

“수영구협의회 회원이 약 300명인데, 수영구 똑딱이봉사단은 수영구의 10개동 회장들을 주축으로 90명 정도 모였어요. 규모가 꽤 있죠. 매년 같은 봉사자가 나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일정이 맞는 사람들이 나와요. 게다가 이들 대다수가 인테리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집수리에는 아주 전뻬가 굵은 베테랑들이죠. 하루에 고쳐야 할 집이 여러 곳이면 팀을 나

눠 동시에 진행해요. 사람이 한쪽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각 집에 맞는 기술자들을 분산시켜 책임지고 작업하도록 해요. 저는 회장으로서는 모든 집을 돌아다니며 진두지휘합니다.”

활동의 시작은 보통 아침 8시. 끝나는 시간은 대중였다. 간혹 시공 종류에 따라 이튿날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가령 욕실 방수의 경우, 날씨에 따라 건조 시간이 달라지는데 넉넉히 이틀을 잡는 편이다. 흔쾌히 주말을 모두 반납하고 이웃을 위해 재능 기부를 펼치는 수영구 똑딱이봉사단.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답은 임병석 회장의 말에서 얻을 수 있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어르신들의 집이 쾌적하고 깨끗하게 탈바꿈되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제 일처럼 기쁘고 부듯해요. 저는 언제나 그 집에 내가 산다는 마음으로 임해요.”

어떤 대가나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이웃의 아픔에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서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싶을 뿐이다. 이는 나와 이웃, 나아가 온 세상을 다정하게 어루만져주는 귀중한 힘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

새마을운동은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했던 70년대만 하더라도 글자 그대로 '잘살기' 운동이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 '건강하게 잘 먹고 '행복하게' 잘살자는 조건이 붙었다. 시대적 요구에 맞춰 수영구협의회의 활동 또한 변화하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과거 성과가 좋았던 사업은 계속해서, 함께 사는 지구촌을 위한 새로운 사업은 과감하게 추진한다. 그 바탕에는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자긍심이 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엔 늘 새마을가족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98년 IMF 금융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고,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침몰했을 때도 기름띠 제거 작업에 손을 보았어요. 2014년 부산 기장군에 큰 수해가 났을 때는 수해 복구 작업을 도왔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에는 수영구부녀회와 함께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눠줬고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벅차요.” 이웃에 대한 애정을 토대로 수영구협의회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그렇게 나온 것이 10여 년 전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한 '새마을무료공구대여센터'. 멩키스패너, 해머드릴, 전기톱, 용접기 등 가정에서 비치하기 어려운 생활 공구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또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 2회씩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활동'을 하고 있다. 주민들이 안전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 역할을 하면서 공공시설물도 살핀다. 고장 난 가로등이 보이면 구청에 바로 신고하는 식이다. 한편, 바다의 도시 수영구는 여름철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대여 및 판매하는 피서용품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역 내 공공단체에 운영을 맡기고 있다. 단체마다 5년에 한 번꼴로 순번이 오는데, 수영구협의회는 작년에도 참여했다. 이는 수영구협의회의 유일한 수익 사업으로, 수익금은 라면과 쌀, 연탄을 구매해 취약계층을 돌보는 데 사용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것. 혼자서는 어렵지만 여럿의 말은 쇠도 녹이는 법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좋은 활동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길 바란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향하여 수영구협의회가 만들어 나갈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

힘을 합쳐 내부 가구를 교체하는 똑딱이봉사단



‘십시일반’ 상생의 온기를 전하다

전북 완주군새마을회

지난 6월 15일, 뜨거운 태양 아래 완주군새마을회가 대농마을 감자밭에 모였다. 밭이랑에 쭈그리고 앉아 감자 하나를 주워들 때마다 즐거운 웃음소리가 뒤흔린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람이 가득했던 이날의 현장을 만나 보자.

글. 최해진 사진. 최영대



여심으로 만나는
전북 완주군새마을회 이야기



이웃의 든든한 지원군

6월 중순은 24절기로 보면 망종(芒種)을 지나 하지(夏至)로 가는 길목이다. 하지는 한 해 중 태양이 가장 높게 떠오르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시기다. 가을에 대비하는 동시에 장마가 오기 전에 감자와 마늘, 보리 같은 밭작물을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농부들이 가장 분주할 때이기도 하다. 문제는 우리나라 농부의 평균 연령이 68세인 데다 40세 이하의 청년 농부는 1%에 불과하다는 것. 농산물 생산이 활발한 완주군 역시 극심한 농촌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완주군새마을회가 감자밭 일손 돕기에 나섰다.

경운기가 이랑을 뒤집자 땅속에 숨어 있던 감자가 쭈뼛 모습을 드러낸다. 봉사자들은 주먹만 한 감자를 주워 흙을 털어내고는 저마다 앞에 놓인 섯노란 플라스틱 상자에 담는다. 20여 명이 함께 작업하다 보니 많게만 보였던 빈 상자들이 금방 채워진다. 구생회 완주군새마을회장은 농사 일이 워낙 힘들다 보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이렇게 많은 회원이 참석해 일손 돕기를 하는 모습에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자랑을 치켜세웠다.

“오늘 완주군새마을회장단뿐만 아니라 완주군청년새마을연대와



왼쪽부터 이신임 완주군부녀회장, 구생회 완주군새마을회장, 이승용 완주군문고회장

우석대 새마을동아리가 동참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일손 돕기에 임해주고 있어서 기특하고 고마워요. 단체별로 개별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서로 힘을 보탬 수 있는 사업은 지금처럼 함께 활동하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조직 간, 세대 간 어우러져 화합하는 것이 공동체 발전의 기본이니까요.”

농촌일손 돕기 외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휴경기 경작도 이뤄진다.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심은 배추로 김치를 담가 직접 농사지은 쌀과 함께 취약 계층에 나눠 주고 있다. 또한 완주군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의 직거래를 촉진하고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완주군 농가에서 양파 2,000kg을 구매해 전주시새마을회를 통해 전주시 내 취약 계층에 전달했다.

우석대 새마을동아리 회원들





밝게 웃으며 감자를 수확하는 완주군새마을회 회원들



땀을 흘리며 감자를 캐는 우석대 새마을동아리 회원들

한편, 칠곡군새마을회와는 더불어 살아가는 영호남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협심해 지금까지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두 새마을회는 격년에 한 번씩 서로의 지역으로 초대해 문화 유적지를 답사하고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지난해에는 완주군새마을회가 칠곡군을 방문했으며, 올해 7월에 칠곡군새마을회를 완주군으로 초청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역 간 교류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완주군새마을회의 진심을 엿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완주군새마을회는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2015년부터 매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해외 봉사를 다녀오고 있다. 주로 열악한 학교 시설을 보수하고 이동이 편리하도록 마을 길을 포장한다.

지역 축제의 빛나는 주역

수많은 새마을운동 중 농촌일손 돕기가 가장 힘들다는 구생회 완주군새마을회장의 말에 이선임 부녀회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완주군 구이면 회장으로 활동한 6년을 포함해 20년간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이선임 회장은 올해 완주군부녀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13개 읍면 회장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해 선배님들이 닦아 둔 길을 따라 열심히 나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소감을 대신했다.

완주군부녀회는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모으기와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환경공단에 판매하는 ‘자원 재활용 수집 운동’, 관내 70세 이상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모시고 관광을 떠나는 ‘효실천 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완주군 최대 지역 축제인 ‘와일드 앤 로컬푸드 축제’는 완주군부녀회가 심혈을 기울이는 중대 사업이다.

“완주군의 특산물과 지역 재료를 활용해 건강하고 신선한 지역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로컬푸드 부스를 13개 읍면 부녀회가 맡아 매년 운영해 오고 있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아무래도 먹거리 부스이다 보니 완주군의 전통 식문화와 특색 있는 지역 음식을 알리기 위해 부녀회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죠.”

축제 수익금은 효도 관광, 반찬 나눔 등 여러 활동에 사용된다. 특히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소신에 따라 완주군 내 위치한 모든 초중고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완주군부녀회는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간 결속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완주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공동체를 위해 힘을 합친 청년들

그늘 한 점 없는 밭에서 감자를 캐느라 다들 녹초가 될 즈음 새참이 등장했다.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을 먹으며 회원들은 단비 같은 휴식을 취했다. 막간을 이용해 완주군청년새마을연대 회원들은 경운기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정답게 시간을 보냈다. 완주군청년새마을연대 ‘늘봄’은 청년 세대의 새마을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차세대 새마을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결성된 완주군새마을회 산하 조직이다. 올해 3월부터 회장을 맡은 정광우 완주군청년새마을연대 회장은 이날 두 명의 회원과 함께 봉사에 참여했다.

“누나가 완주군새마을회에서 활동하는데, 작년에 같이 봉사를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 왔어요. 그간 누나를 보며 봉사에 대한 마음을 키워왔던 터라 바로 가입했죠. 이렇게 회장까지 맡게 되었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올해는 완주군새마을회의 활동을 따라다니며 옆에서 보고 배우는 시기로 삼을 생각이예요.” 정광우 회장은 새마을운동에 전념해 굵은 선배 지도자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받으며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올해의 보조 경험을 토대로 내년부터 완주군청년새마을연대의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할



협동하여 플라스틱 상자를 옮기는 회원들

계획이다. ‘늘 봄이여라’란 뜻을 가진 조직의 이름처럼 밝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완주군청년새마을연대의 앞날을 응원한다. 한편, 우석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원 6명은 씩씩하게 돌아다니며 밝은 에너지를 전파했다. 2021년 11월 출범한 우석대 새마을동아리는 양승진 회장(우석대 군사학과 3학년)의 리더십 아래,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리원의 대다수가 강인한 체력을 가진 군사학과 학생인 만큼 낯선 밭일을 하면서도 지친 기색이 없었다. 수박을 먹고 나자 하나둘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들더니 주변의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줍기도 했다.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고 있던 생각에 만족감이 큼니다. 무엇보다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봉사에 참여한 동아리 회원들에게 고맙단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서로를 격려하며 완주한 이번 농촌 봉사 활동은 훗날 완주군을 더욱 왕성하게 발전시킬 저력이 될 것이다. 오늘 흘린 구슬땀이 완주군을 활기치게 이끌 것이란 확신이 있게 이들이 만들어 갈 미래가 기대된다. ☺

열창한 비닐을 걷어 내는 완주군청년새마을연대 회원들



함께 뛰고 웃으며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든다

경남 통영시 청년새마을연대

지난 4월 통영청소년수련원에서 특별한 운동회가 열렸다. 경남 통영시 청년새마을연대(랄라·다움·브레이발소)가 지역 내 육아원 아이들을 위해 재능기부 프로그램과 운동회를 마련한 것이다. '청년새마을연대와 함께하는 세대공감 운동회'를 주관한 경남 통영시 청년새마을연대 3개 팀의 회장들을 만나 소감을 들어봤다.

글. 이원복 사진. 손호남



Q — 먼저 본인과 각 팀을 소개해 주세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황현숙_랄라청년새마을연대 회장 황현숙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가르치며 지역사회에 재능을 나누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랄라'는 페르시아어로 '스승'을 의미해요. 우쿨렐레 동아리로 2년간 활동을 펼치던 중 지난해 4월부터 통영시새마을회와 인연을 맺어 새마을운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종선_우리나라의 전통무예를 통해 문화예술을 알리고 있는 다움청년새마을연대 회장 김종선입니다. 다움은 지난 2019년 5월 "가장 우리다운 모습으로 '다'함께 '움'직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만들어졌어요. 구성원의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곽순정_브레이발소청년새마을연대 회장 곽순정입니다. 브레이발소는 통영시 광도면에서 수학, 주짓수,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님 10여 명이 모여 만든 단체예요. 독립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오다가 2023년 9월부터 제과·제빵, 이발·미용, 예체능 등 분야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브레이발소'라는 애니메이션 이름에 착안했죠.



랄라청년새마을연대의 우쿨렐레 공연

Q — 세 단체가 함께 운동회를 연 것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계기로 계획하게 되었나요?

황현숙_통영육아원은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보호와 양육이 어려운 위기 아동(만 24세까지 보호)을 대신 보살피는 아동양육시설이에요. 통영시 내 아동양육시설 중 가장 큰 규모죠.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될 재능봉사자를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김종선_통영육아원이 통영새마을회와 교류하고 있었고, 마침 통영청년새마을연대가 통영시로부터 사업비 1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였죠. 3개 단체가 함께할 사업을 고민하던 중 세대공감 운동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곽순정_운동회를 기획하면서 각 단체가 자신들의 특성을 살려 재능을 나누고, 하나로 뭉쳐 더 큰 시너지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뛰고 소통하며 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죠.



브레이발소청년새마을연대의 니만의 초콜릿 만들기 체험 활동

Q — 세대공감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 가진 신경을 썼나요?

황현숙_ 이날만큼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또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안전도 중요했구요.

김종선_ 저희 역시 아이들과 청년연대 회원들이 어우러져 웃고 뛰어노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처음으로 활쏘기 체험을 시도해 봤는데요, 새로운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였습니다.

곽순정_ 평소 하지 못했던 특별한 체험활동으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려고 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초콜릿 만들기'를 준비했는데 위생, 안전, 뒷정리 등 여러 면에서 주의가 필요했죠.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도와주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Q — 어떤 점이 가장 보람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황현숙_ 처음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낯설어했지만, 아이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고 친근하게 다가갔더니 금세 벽이 허물어졌죠.

특히 운동회 때 아이들이 먼저 달려와 저희와 하이파이브를 건넨 순간에는 큰 감동과 보람이 느껴졌어요.

김종선_ 이번에 세 곳의 청년새마을연대가 함께하면서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두 배, 세 배 이상 커진 느낌이에요. 다음, 랄라 그리고 브레이드이발소가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호흡이 잘 맞아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선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곽순정_ 함께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재주를 가진 분들이 많음에 놀라웠죠. 그래서 청년새마을연대 회원들이 더욱 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무엇보다 운동회가 즐거웠고, 다친 사람 없이 마무리돼 보람이 있었습니다.

Q — 재능기부와 봉사를 통해서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황현숙_ 어릴 때 가정환경이 좀 어려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우리 사회가 그래도 살만하고 아름다운 곳임을 알았죠. 제가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훗날 꼭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겠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새마을운동에 함께하게 된 거죠.



김종선_ 특별한 게 있나요? 새마을운동으로 이웃을 도우면 제 마음도 따뜻해지니까요. 작은 관심과 노력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웃음과 사랑을 전한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기쁘죠. 누구든지 한 번이라도 같이 해보면 계속 함께하고 싶을 거예요.

곽순정_ 반세기 동안 '다함께 잘살아보세'라는 슬로건으로 꾸준히 우리나라의 성장과 공동체 정신을 발전시켜 온 새마을운동에 일조했다는 보람이 큼니다. 지난해 브레이드이발소가 새마을중앙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새마을지도자, 청년연대, 대학동아리와 함께하는 제과제빵 나눔도 실시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해 뜻깊었죠. 앞으로 다른 청년새마을연대나 대학새마을동아리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려고요.

Q — 세대공감 운동회를 마친 소감 한마디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황현숙_ 먼저 랄라청년새마을연대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넘게 봉사활동을 이어오면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랄라청년새마을연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는 요양병원과 어린이집도 함께 하는 활동을 계획해 보려고요. 추후 통영 시민들을 위한 길거리 버스킹으로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김종선_ 육아원 어린이들이 밝게 웃으며 멋진 어른으로 자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한 청년새마을연대 회원들과 통영시새마을회에도 앞으로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한 계획보다는 앞으로 꾸준히 한발 한발 나아가며 성장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곽순정_ 운동회를 위해 몇 달간 준비하고 애써주신 통영시새마을회 사무국과 청년연대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 연대가 연합해 정말 보람 있고 뜻깊고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브레이드이발소는 제과-제빵, 이발-미용 봉사뿐만 아니라 통영시새마을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구촌새마을운동으로 큰 미래를 그린다

탄자니아·잠비아·타지키스탄 초청연수생 인터뷰

탄자니아·잠비아·타지키스탄 공무원과 마을지도자들이 각각 지난 5~6월 새마을운동 초청연수를 받았다. 이들 국가는 이제 막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들로 맞춤형 강의와 발표, 견학 및 체험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인상 깊게 배웠고 어떤 액션 플랜을 수립했을까. 각국의 연수생에게 초청연수에 참여한 소감과 새마을운동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강진우, 이원복 사진. 홍승진



새마을운동을 향한 희망찬 첫걸음

지역 농업 개발 담당관
압달라 하마드 파키

간도 마을 청년 지도자
술레이만 알리 파키



Q.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압달라 하마드 파키 저는 탄자니아 정부의 지역 농업 개발 담당관으로서, 농촌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어요. 저의 업무가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확신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새마을운동 초청연수에 참가했습니다.

술레이만 알리 파키 탄자니아 잔지바르의 간도 마을에서 온 청년 지도자입니다. 현지의 청년 세대들과 어떻게 협력해서 마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죠. 청년들의 마인드셋 변화에 관심이 있어서 연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Q. 이번 초청연수 중 특별히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압달라 하마드 파키 한국의 산림녹화사업에 대한 교육이 기억에 남아요. 한국이 무분별한 벌채와 전쟁 등으로 황폐해진 국토를 어떻게 조림해 나갔는지를 살필 수 있었죠. 새마을운동을 통해 탄자니아에도 풍요로운 산림 자원을 가꿀 구체적인 방법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술레이만 알리 파키 영화 <국제시장>을 시청한 게 참 좋았습니다.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으로 성장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죠.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것이 감동적이어서 눈물까지 났죠. 탄자니아도 새마을운동을 원동력 삼아 한국처럼 잘살게 되면 좋겠어요.

Q. 초청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탄자니아에서 추진하려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세요.

압달라 하마드 파키 주민들에게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교육시키는 일을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이후에 각 마을에 화장실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화장실 등의 위생시설이 열악하다 보니 설사,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이 유행하는데,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술레이만 알리 파키 탄자니아는 교류와 물품 유통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도로가 많이 망가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마을 청년들과 함께 도로 복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개선되면 물품 유통 문제뿐만 아니라 마을 간 협동도 잘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해요.

Q. 전 세계의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압달라 하마드 파키 각 나라의 새마을지도자들이 탄자니아에 방문하면 좋겠어요.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유익한 내용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술레이만 알리 파키 새마을운동은 탄자니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언제든지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실천해서 함께 잘사는 탄자니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잠비아

**1년차의 성과를 토대로
진일보한 새마을운동 비전**

음와치비아 마을 지도자
비아트리스 문가

노인 공동체 개발 담당관
카팔루 무스알라



Q. <새벽중> 독자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카팔루 무스알라 잠비아 정부의 노인 공동체 개발 담당관이며, 동시에 새마을운동 담당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는 4개 마을에 프로젝트 모니터링과 행정적 지원, 재정적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뒷받침합니다.

비아트리스 문가 음와치비아 마을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새마을운동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농업과 어업 중심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새마을운동으로 마을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고민하고 실행합니다.

Q. 잠비아의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성과를 거뒀나요?

카팔루 무스알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고무적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각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요, 급수 시스템 확충과 시장 개소 및 확장 측면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비아트리스 문가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것 자체가 우리 마을의 성과였다고 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는데요, 새마을운동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실천해 나가면서 마을을 변화시켜 나갔죠.

Q. 이번 초청연수 중 가장 유익했던 교육은 무엇이었나요?

카팔루 무스알라 한국은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임에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반면 잠비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함에도 발전이 더디죠.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나서는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훌륭한 리더십이 있어야 국가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비아트리스 문가 원로 새마을지도자인 정문자 여사님의 강의를 직접 들은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여사님이 어떻게 앞장서서 부녀회를 결성하고 이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을을 변화시켰는지를 알았습니다. 잠비아에 가면 정문자 여사의 정신을 잇는 부녀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Q. 잠비아에 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부터 추진할 계획인가요?

카팔루 무스알라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급선무예요. 잠비아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음식을 주식으로 먹는데요, 특별히 옥수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관개 시설이 없다보니 내리는 비만으로도 쉽게 기를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댐이나 관개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비아트리스 문가 잠비아는 태양광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될 정도로 일조량이 풍부합니다. 관련 설비가 거의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 병원 등 전기가 꼭 필요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타지키스탄

**새마을운동으로
협력과 변화 꿈꿔**

타지키스탄 대통령 사무국 대표
우메드 미르조예브

나브바하르 마을 회장
차마노르 오디나예바



Q. 타지키스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메드 미르조예브 타지키스탄 대통령 직속 사무국의 대표로서 타지키스탄 내 여러 지역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협력 사업과 타지키스탄 새마을운동 관련 업무도 맡고 있어요.

차마노르 오디나예바 나브바하르 마을의 회장이며 사리나브 지역의 사회개발총부 부서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역 정책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Q. 타지키스탄 새마을운동의 현황과 인식은 어떤가요?

우메드 미르조예브 타지키스탄에서 새마을사업이 추진된 지 오래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새마을운동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일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초청연수를 통해서 공무원과 마을 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본격적 사업 계획을 세워가는 단계입니다. 더 많은 지역이 새마을운동으로 발전하고 모두가 더 잘사는 날이 올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차마노르 오디나예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면 우선 마을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식수 공급과 마을 전봇대 교체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새마을운동의 효과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죠.

Q. 초청연수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메드 미르조예브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던 영화를 시청한 것이 기억에 남아요. 과거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에 모든 국민이 잘살기 위해 노력했고, 덕분에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영상으로 볼 수 있었어요. 새마을운동도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고요.

차마노르 오디나예바 산림교육원에서 진행한 '산림복원 및 관리' 교육이 인상 깊었어요. 지구 환경오염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타지키스탄도 마찬가지죠. 새마을운동이 그 환경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Q. 타지키스탄의 새마을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우메드 미르조예브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개인주의도 강해졌어요. 나만 잘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먼저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부터 바꾸고자 합니다. 모두가 노력하면 더 잘살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생각이예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다면 분명 변화할 수 있습니다.

차마노르 오디나예바 우선 주민들의 마음이 모여야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잖아요. 구성원들의 협동심을 키워줄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청연수에 온 타지키스탄의 새마을지도자와 주민 모두가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거예요. ✦

작은 칭찬이 모여 긍정의 힘이 되다

서로를 응원하며 행복으로 나아가는 새마을공동체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세상은 더욱 밝아지고 행복해진다.
작은 긍정의 씨앗이 모여 큰 행복의 나무로 자라기 때문이다.
칭찬과 긍정의 언어를 주고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마을공동체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부녀회

이웃에게 행복과 웃음을 전하는 남희수 대전시부녀회장님을 칭찬합니다

남희수 대전시부녀회장님은 '어르신 돌봄사업'으로 홀몸 어르신 243명과 1:1 결연을 맺어 정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의지 고취, 급식 봉사, 농촌 일손 봉사 등으로 으뜸 대전을 이뤄갑니다.

From_ 전미용 강원특별자치도부녀회장



"함께 웃는 세상을 위해 홀몸 어르신 돌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새마을부녀회가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_ 남희수 대전광역시부녀회장



협의회

헌신과 봉사로 조직을 이끄는 원광회 세종시협의회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원광회 세종시협의회회장님은 미래 전략 수도인 세종시를 모두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새마을정신에 기반한 리더십으로 구성원을 뚝뚝 뭉치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협의회 조직력을 성장시키고 있는 원광회 회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From_ 윤종희 서울특별시협의회회장



"많은 경험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대한민국 수도의 새마을운동을 이끌어가는 윤종희 서울협의회회장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더 배워서 새마을협의회를 더욱 잘 이끌겠습니다."
_ 원광회 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회장

직장 공진협의회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준 서희석 전 직장·공장 경성남도 진주시협의회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서희석 전 직장·공장진주시협의회회장의 따뜻한 리더십을 칭찬합니다. '팔죽 나눔데이' 사업으로 지역 어르신 돌봄에 앞장서고, 보건대학 학생들과 함께 건강관리 서비스를 진행해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From_ 김시범 직장·공장제주협의회회장



"저를 추천해 주신 김시범 직장·공장제주협의회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그만큼 직장·공창회원으로서 더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봉사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_ 서희석 전 직장·공장 경성남도 진주시협의회회장

From_ 김시범 직장·공장제주협의회회장

문고

지역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지용현 문고 경북 문경시지부 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지용현 회장은 문경시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독서와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방법 활동, 불우이웃 돕기 등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From_ 이길용 문고 경상북도 문경시지부 부회장



"문고 회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고와 문경시가 발전하도록 무엇이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_ 지용현 문고 경상북도 문경시지부회장

청년새마을

온화함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김영명 전남 청년새마을연합회장님을 칭찬합니다

김영명 회장은 1기 청년새마을해외봉사단에서 모범이 되고 있으며, 타인에게 따뜻한 정(情)을 나눠줍니다.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일을 처리할 때만큼은 카리스마로 좌중을 휘어잡는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From_ 류민성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총무부장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 덕분에 받은 칭찬인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신 선배님들을 보고 배워서 청년새마을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_ 김영명 전라남도 청년새마을연합회장

From_ 김영명 전라남도 청년새마을연합회장

대학새마을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백인우 경기대 새마을동아리 회원님을 칭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있는 이들을 즐겁게 만드는 백인우 회원님을 칭찬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 해외봉사 때에도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From_ 장혁 경기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원



"예상하지 못한 칭찬에 놀랐지만, 따뜻한 말씀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변으로부터 좋은 기운을 받다 보니 저 또한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_ 백인우 경기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원



새마을가족의 칭찬 릴레이는 다음호 (새벽중)으로 이어집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여름철 최고의 힐링 여행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액티비티가 조화를 이루는 휴양지다.

청량한 자연 속에서 즐기는 하이킹과 레저 스포츠, 피크닉이 무더위를 잊게 만든다.

특히 올해는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로 어느 때보다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여름철 여행을 완벽하게 만들 무주로 떠나보자.

글. 편집실



덕유산 향적봉까지 이어진 케이블카



여름의 무주를 즐기는 방법 '덕유산국립공원'

무주군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덕유산국립공원이다. 여름철에도 청량한 기운이 감도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이다. 특히 향적봉(해발 1,614m)은 덕유산의 정점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꼭 한 번쯤은 정상에 오를 만한 가치가 있다. 요즘 같은 여름에는 다양한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는 덕에 하이킹과 트레킹을 즐기는 이들에게 인기가. 향적봉은 무

주리조트에서 출발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오를 수도 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도착하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펼쳐지는 전망이 한여름의 더위를 잊게 할 만큼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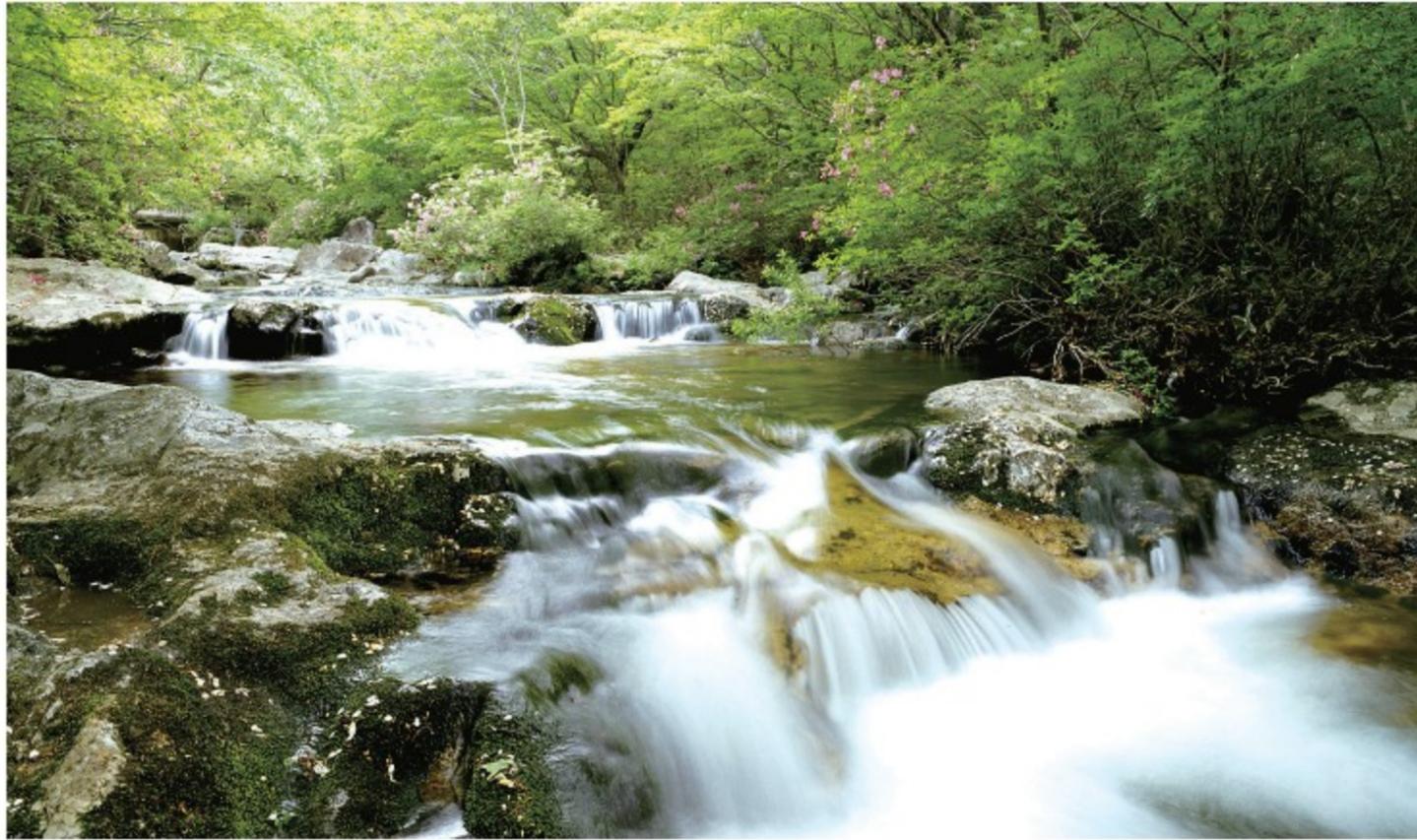
덕유산국립공원 내에는 다양한 탐방로가 있어 각기 다른 매력의 코스를 따라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구천동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탐방로는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 소리와 함께 걷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자연의 청량함을 경험했다면 덕유산 내 안국사에 들러 천년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자. 덕유산국립공원 깊은 숲에 자리한 고즈넉한 산사로, 평온함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특별한 장소다. 덕유산 인근 무주리조트에서는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겨울철 스키장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여름에는 산악자전거, 서바이벌 게임, 여름 썰매 등 다양한 액티비티가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다. 산악자전거를 타고 리조트 주변의 산길을 달리거나,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며 스릴을 맛볼 수 있다.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안국사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1로 159



시원해 보이는 구천동계곡의 물줄기



여름의 청량함이 있는 '구천동계곡'

구천동계곡은 청량한 계곡물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무주의 여름을 대표하는 자연 명소로 손꼽힌다. 덕유산국립공원 내 약 33km에 달하는 긴 계곡을 따라 다양한 명소와 경관이 펼쳐진다. 계곡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구천동은 '아홉 개의 천동(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깊은 골짜기)'을 뜻하는데, 천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풍경을 자랑한다.

구천동계곡은 더위가 심해질수록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계곡을 따라 걸으면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고, 힘찬 물소리가 한여름의 더위를 식혀준다. 계곡 주변에는 나무가 우거진 덕분에 자연 그늘에서 편안하게 쉴 공간도 많다. 그중에서도 유명한 곳은 바로 구천폭포. 물이 계단식으로 떨어지며 만들어 내는 물안개와 시원한 물줄기는 천연 에어컨이라고 할 만큼 더위를 잊게 한다. 또한

구천동 탐방로는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길로, 무주가 자연특별시로 불리는 이유를 바로 알게 할 정도로 자연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산책로다. 곳곳에 있는 작은 폭포와 다양한 야생화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사색에 잠겨 걷다 보면 구천동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만나게 된다. 계곡의 중간쯤 위치한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그야말로 일품이다.

구천동계곡은 피크닉 장소로도 안성맞춤이다. 계곡을 따라 조성된 쉼터에서 간단한 도시락을 즐기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맑은 물가가 많아 어린이가 있는 가족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편안한 복장과 맛있는 간식 그리고 여벌의 옷을 준비해 물놀이를 떠나보자.

📍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산 262-3



태권도의 성지 '국립태권도박물관'

국립태권도박물관은 우리나라 전통 무술인 태권도의 역사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다.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시한다. 태권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전하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태권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많이 방문한다.

박물관은 여러 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전시관은 태권도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한다. 먼저 제1전시실에서는 태권도의 기원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를 다룬다. 이곳에서는 태권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고대의 무술 유물부터 현대의 태권도 경기 장비까지 다양한 전시품이 있다.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를 보여주는 제2전시실은 태권도를 통한 몸과 마음, 삶의 변화를 보여준다. 태권도의 철학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를 탐구할 수 있다.

제3전시실은 태권도가 전 세계로 확산된 과정과 각국에서 어떻게 태권도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 중인 태권도 사범들의 이야기와 국제 태권도 대회 모습도 만날 수 있다.

국립태권도박물관은 어린이와 성인 모두를 위한 태권도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방문객들은 태권도의 기본 동작을 배우고 실습



태권도의 역동성을 표현한 동상 '태권사상의 빛'



태권도의 역사와 가치를 만날 수 있는 국립태권도박물관

할 수 있다. 현재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박물관에서 태권도 즐기기'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관람객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태권도 이론 강의와 체험활동이 이뤄진다.

📍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여행지에서 만나는 축제

어름밤의 환상적인 빛의 향연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신비로운 빛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무주등나무운동장 일원에서 열린다. 여름의 무주는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한여름 밤에 펼쳐지는 반딧불이의 춤사위는 그

야말로 환상적이다. 무주반딧불축제는 여름을 빛내는 대표적인 행사로 하이라이트는 단연 반딧불이를 두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반딧불이 신비탐사'다. 어둠이 깔린 숲속에서 반딧불이의 은은한 빛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낀다. 반딧불이를 관찰할 때는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조명을 최소화하고, 소음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반딧불이가 보여주는 빛의 마법을 온전히 느껴보자.

일시 : 2024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장소 : 무주등나무운동장 일원(전북 무주군 한풍루로 326-14)

환경을 지키는 방법

냉장고 파먹기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냉장고 파먹기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막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지 냉장고 속 재료를 활용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자 했던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환경보호라는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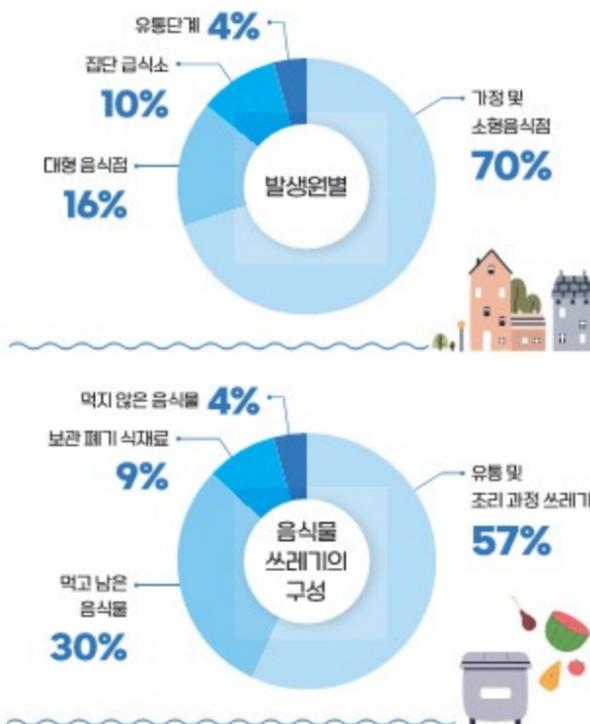
글. 편집실



편리함과 과소비의 딜레마, 냉장고

냉장고가 발명되면서 인간의 삶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식자재를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패한 음식을 섭취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식중독 위험도 감소했다. 식량을 낭비하는 일도 줄었고, 끼니마다 음식을 얻기 위해 노동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냉장고는 다른 문제를 불러왔다. 필요 이상으로 식자재를 구매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약 70%가 가정 및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이중 유통 및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5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먹고 남은 음식물이 30%, 보관하다가 폐기하는 식재료가 9%, 먹지 않은 음식물이 4%이다. 전문가들은 배달 음식과 가공식품, 간편식 소비 증가 같은 식문화 변화가 더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환경보호와 절약,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냉장고 파먹기'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냉장고에 잠자고 있는 식재료를 먼저 사용해 불필요한 지출과 버려지는 식자재를 줄이는 움직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취생이나 1인 가구가 식비 절감을 위해 시작한 것이 최근에는 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이들이 실천하고 있다.

냉장고 파먹기의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냉장고는 항상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작동하며, 특히 내부에 음식물이 많거나 자주 문을 여닫으면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진다. 그러나 냉장고를 비우는 것만으로도 냉기 순환이 원활해져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

<새벽종> 읽고, 탄소중립 실천하자! 탄소중립 실천에 진심인 새마을가족 인증 사진

김계영(6589)



"출퇴근을 같이하는 제 텀블러예요. 매일 여기에 커피와 물을 담아 마시니 이제는 분신이 된 듯, 없으면 허전해요."

강창규(7604)



"나들이 때 음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먹을 만큼만 덜어 먹었어요. 탄소중립을 실천해 기후 위기를 극복해 봅시다."

이성빈(1889)



"멀리 갈 때는 물이 있으면 좋은데요. 편의점에서 사 먹는 게 편하지만, 환경을 위해서 이 정도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다혜(1734)



"주말에 연인과 피크닉을 갔다가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왔어요. 다음에는 다회용 그릇을 사용하려고요."



냉장고 파먹기를 실천한 모습의 사진을 촬영해 보내주세요. 남은 재료로 만든 음식, 계획적인 장보기, 음식 남기지 않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음호 <새벽종>에 소개되며,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내용 직접 촬영한 사진(2MB)과 설명글(30자 내외) **보내시는 방법** QR코드 스캔 후 파일 첨부

중앙회

제27대 김광림 중앙회장 선출

중앙회는 지난 7월 18일 중앙회 대강당에서 2024년도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김광림(76) 전 국회의원을 제27대 새마을운동중앙회장으로 선출했다.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영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와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 경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14회(1973)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에서 첫 공직을 시작한 김광림 회장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재정경제부 차관, 세명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제 18-19-20대 국회의원(경북 안동시)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이날 "새마을운동은 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이 절실하다. 새마을정신을 계승하면서 다시 새마을운동으로, 함께 잘사는 따뜻한 세상과 인류 공동 번영을 위해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헌혈증서 기증식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배진호)는 지난 6월 27일 한국소아암재단을 찾아 사랑의 헌혈증서 688장을 기증했다. 지난 6월 10~14일까지 헌혈 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218개 청년새마을연대 회원과 가족 등 총 3,398명이 헌혈 릴레이에 동참해 온기나눔 캠페인을 전개했다.



대학새마을동아리 하계 해외봉사단 발대식

중앙회는 지난 7월 3일 본관 제4강의실에서 '2024 캄보디아 새마을해외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14박 15일 동안 캄보디아에 파견되는 대학새마을동아리 하계 해외봉사단은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교육 콘텐츠와 문화를 활용한 교육봉사, 문화교류 등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가기록원장 내방

지난 6월 28일 중앙회에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이 내방해 새마을역사관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새마을운동기록물을 살펴보았다. 이날 김한학 사무총장은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을 만나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지닌 가치를 소개하고, 이를 일반시민과 공유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피지·파푸아뉴기니 새마을교육 초청연수

중앙회는 지난 7월 9일부터 18일까지 9박 10일간 지속 가능한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피지·파푸아뉴기니 초청 새마을교육을 실시했다. 각국 마을지도자와 공무원 등 총 38명의 연수생이 참여한 이번 초청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범사업 모범 사례를 공유해 새마을운동의 현지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서울



25개구 순회간담회·농촌일손돕기

서울특별시새마을회(회장 김연포)는 지난 5월 16일부터 25개구새마을(지)회 순회간담회 추진을 통해 새마을지도자와 신임 회장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직활성화 방안 및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부녀회(회장 조동희)는 지난 6월 17~19일 25개구 부녀회원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 단양군 마늘농가에서 '마늘수확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부산



바이바이 플라스틱 환경체험 한마당

부산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회장 곽해주)는 지난 6월 8일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펼쳐진 '제3회 바이바이 플라스틱 환경체험 한마당' 행사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교육주간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한편, 부산시새마을회(회장 백옥자)는 지난 6월 28일 시새마을회관 지하 1층 강당에서 강원 자 사무처장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대구



EM홍공아, 신천을 부탁해

대구광역시협의회(회장 김수현)와 부녀회(회장 박명숙) 남녀지도자들은 지난 6월 14일 중구 수성교 하류 징검다리에서 EM(유용미생물군) 홍공 3,000개를 던지고 하천 주변 줌깅활동을 전개했다. 홍공은 지난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을 맞아 남녀지도자들,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80여 명이 EM발효액과 황토를 배합해 만들었다.

인천



10개구군 순회간담회·부녀회 임원워크숍

인천광역시새마을회(회장 이항일)는 지난 6월부터 10개구군새마을회를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선 새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항일 회장과 시회원단체장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부녀회(회장 황금덕)는 지난 6월 25일 아침고요수목원에서 구군 임원진을 대상으로 '인천시새마을부녀회 조직강화 화합 워크숍'을 가졌다.

광주



탄소중립 발대식·트레킹

직장·공장 광주광역시협의회(회장 이명식)는 지난 6월 22일 목송그룹에서 직장 내 탄소 줄이기에 대한 관심과 역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5개구 80여 개의 회원사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실천을 다짐하고, 충북 진천군 미르숲길에서 직·공장협의회 화합 한마당을 위한 트레킹을 실시했다.

대전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대세동 워크숍

대전광역시새마을회(회장 박영복)는 지난 7월 1일 시새마을회관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본부장 장국진)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공헌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9일에는 대전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구 새마을회장단과 8개 대학 지도교수와 새마을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총회 및 워크숍'을 열고 배재대 이승원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울산



마을공동체운동 추진리더 워크숍
울산시새마을회(회장 정대식)는 지난 6월 18~19일 컨벤션리조트 경주에서 시회장단, 5개 구군 56개 읍면동회장단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2024 마을공동체운동 추진리더 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원



라오스 국제협력사업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백상원)는 지난 6월 11~15일 18개 시군구협의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라오스 깡머마을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했다.

세종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연찬회
세종시새마을회(회장 김영제)는 지난 6월 19~20일 충남 보령에서 새마을지도자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를 개최했다.

충북



'일손이음'으로 농가돕기
충청북도새마을회(회장 남재호)는 지난 6월 17일 진천군 문백면 딸기농가에서 일손이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경기



16개 민간단체와 기후행동 동참 공동선언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이호경)는 지난 6월 21일 도내 민간 단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행동에 동참할 것을 공동 선언했다.

충남



새마을봉사상 시상식·농촌일손 돕기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회장 박숙희)는 지난 7월 4일 보령시 비체펠리스에서 임성범 충청남도새마을공동체과장, 성낙구 충청남도새마을회장과 시군 읍면동부녀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 새마을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북



사랑의 인문학 콘서트 및 중앙문고회장 순회간담회
문고 전북특별자치도지부(회장 나순희)는 지난 6월 19일 고창군 책풍에서 시군 문고회원,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인문학 콘서트, 작가와의 만남 및 중앙문고회장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남



우리바다 정화활동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윤원섭)는 2024년 바다 정화 및 자원순환 활동계획에 따라 '바다야, 사랑해! 해양쓰레기 제로!' 우리 바다 정화 활동을 지난 5월부터 거제, 통영, 사천, 고성, 남해, 하동 등 경남 연안 7개 시군에서 진행했다.

전남



사랑의 헌혈행사·호남권 사무직원 단합대회
전남 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김영명)는 지난 6월 13일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했다. 40여 명의 청년새마을연대 회원과 관계자가 헌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주



라오스 국제협력사업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회장 김창기)는 지난 5월 23~27일까지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으로 라오스 나싸이통구마을 일라이중고등학교에 환경개선 및 학용품 지원했다.

경북



중앙아프리카대통령 방문
경상북도새마을회(회장 서중호)는 지난 6월 6일 도새마을회관에서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방문 행사를 가졌다.

이북5도



동화경모공원 통일기원 합토식
이북5도새마을회(회장 조성원)는 지난 6월 4일 지도자를 50여 명과 동화경모공원에서 통일기원 합토식을 가졌다.

공동체 문화 조성

•서울 종로구협의회(회장 최이성)는 지난 6월 26일 '사랑나눔 텃밭가꾸기 김자수확' 사업을 전개해 김자 35상자를 수확했다.



•서울 성동구부녀회(회장 서기순)는 지난 6월 12일 '희열(희망의 열무김치)나눔'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총 425가구에 열무김치를 전달했다.



•서울 광진구부녀회(회장 전태연)는 지난 6월 18일 새마을회관에서 수제쿠키를 준비해 관내 한부모가정 40가구에 전했다.

•서울 성북구 정릉2동부녀회(회장 이덕남)는 지난 6월 21일 주민센터에서 밀반찬을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부녀회(회장 박여자)는 지난 6월 26일 주민센터에서 삼계탕과 김치를 만들어 관내 어르신 100여 명에게 전달했다.



•서울 서초구부녀회(회장 송영복)는 지난 6월 19일 충북 단양군 농가를 찾아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촌일 돕기 활동을 전개했다.

•인천 동구 만석동부녀회(회장 이명숙)는 지난 6월 1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삼계탕 나눔' 사업을 전개하고 관내 어르신 300여 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했다.



•인천 강화군새마을회(회장 조인술)는 지난 6월 4일 취약계층에 여름이불 400채를 전달했다.



•강원 춘천시 남면부녀회(회장 김경숙)는 지난 6월 21일 홀몸 어르신 50가구에 떡과 김치를 전달했다.

•강원 원주시 무실동협의회(회장 윤일호)와 부녀회(회장 정은숙)는 지난 6월 28일 관내 형편이 어려운 세대를 찾아 집안에 쌓인 폐기물 2톤가량을 수거하는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강원 강릉시 강남동협의회(회장 김창호)와 부녀회(회장 김선남)는 지난 7월 3일 마을돌봄터에 컵라면 300개와 두유 300개 등 총 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강원 태백시새마을회(회장 손재호)는 지난 6월 20일 태백시에 인재 육성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강원 속초시 조양동부녀회(회장 서승금)는 지난 6월 20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코다리조림, 명태회 등 밀반찬 150개 꾸러미를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강원 홍천군 내면부녀회(회장 박남옥)는 지난 5월 20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20만 원을 기탁했다.

•강원 횡성군 우천면협의회(회장 김찬중)와 부녀회(회장 신동일)는 지난 5월 28일 아동복지시설 심장 그룹홈을 방문해 20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식료품을 기탁했다.

•강원 영월군 북면부녀회(회장 위옥자)는 지난 6월 9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100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장수식당을 운영했다.



서울·인천·강원

•강원 평창군 평창읍협의회(회장 황용진)와 부녀회(회장 김석분)는 지난 6월 25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사랑의 계절김치 나누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200가구에 김치를 전달했다.



•강원 철원군부녀회(회장 이애숙)는 지난 5월 20일 새마을회관에서 '사랑의 김치나눔' 사업을 실시해 홀몸 어르신,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 130가구에 김치를 전달했다.

•강원 인제군 북면부녀회(회장 정옥수)는 지난 6월 18일 원동체육관 식당에서 '사랑의 반찬나눔' 사업을 전개해 지역 어르신 75가구에 반찬을 전달했다.



탄소중립 실천



•직장·공장 서울 광진구협의회(회장 김문중)는 지난 6월 16일 이차산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줍깅데이를 추진했다.



•서울 마포구새마을회(회장 이병민)는 지난 5월 23일 탄소중립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을 추진해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4톤과 고철 512kg을 수거했다.



•서울 영등포구협의회(회장 전태영)와 부녀회(회장 이선숙)는 지난 6월 14일 여의도 새마을공원에서 군집기 교체 및 공원 청소, 무궁화 묘목을 심었다.

•인천 미추홀구 관동동부녀회(회장 이영우)는 지난 6월 20일 '명품동네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관내 밀집상가 및 학교 도로변의 환경을 정화했다.



•직장·공장 인천 계양구협의회(회장 한남준)는 지난 6월 29일 계양산 일원에서 계양산 둘레길 환경정화 및 탄소중립 캠페인을 진행했다.

•인천 강화군 교통면협의회(회장 임달호)는 지난 5월 27일 죽산포 선착장에서 APEC 정상회의의 유치를 지원하며 해안 쓰레기를 수거했다.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부녀회(회장 이나윤)는 지난 7월 2일 주문진해수욕장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강원 태백시 장성동협의회(회장 석상민)와 부녀회(회장 현정미)는 지난 5월 18-19일 관내 초등학교와 아파트 학단에 꽃을 심는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강원 속초시새마을회(회장 김강석)는 지난 5월 12일 '쓰레기 없는 청정한 바다 가꾸기' 사업으로 아바이마을 해안가에서 해조류 부산물과 쓰레기를 수거했다.



•강원 평창군 봉평면협의회(회장 김철형)는 지난 7월 3일 관내 폐농약병을 수거하는 자원 재활용 활동을 전개했다.



공동체 문화 조성

- 부산 북구부녀회(회장 유선희)는 지난 6월 25일 구청 앞마당에서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사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330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했다.
- 부산 해운대구부녀회(회장 김순애)는 지난 6월 14일 온기나눔 실천을 위한 '사랑 나눔 밑반찬 지원' 사업을 전개해 반찬 3종을 관내 취약계층 170가구에 전했다.
- 부산 금정구 부곡1동부녀회(회장 김영순)는 지난 5월 21일 중식봉사연합회 금정구협의회 후원으로 지역 내 어르신 260여 명에게 짜장면과 수육을 대접했다.
- 부산 수영구새마을회(회장 박해운)는 지난 6월 18일 관내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이불 19채를 수거해 세탁활동을 실시했다.



- 부산 사상구 주례2동부녀회(회장 박금선)는 지난 5월 2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만든 밑반찬을 취약계층 30가구에 전했다.
- 대구 서구 평리2동협의회(회장 이원곤)와 부녀회(회장 서경애)는 지난 6월 20일 관내 저소득층 150여 명에게 직접 끓인 삼계탕을 전달했다.



- 대구 달성군 농공읍협의회(회장 제갈태규)와 부녀회(회장 이홍임)는 지난 6월 7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맛바구니' 사업을 실시하고 관내 취약계층 50여 가구에 반찬을 전달했다.
- 울산 남구 무거동협의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7월 2일 저소득층 및 장애인 주거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4가구의 조명을 교체했다.



- 울산 동구 화정동협의회(회장 김병찬)와 부녀회(회장 김미옥)는 지난 6월 28일 관내 취약계층에 250만 원 상당의 식재료를 전달했다.
- 경기 안산시새마을회(회장 임충열)는 지난 6월 27일 관내 취약계층 40가구에 지역 생산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 경기 파주시협의회(회장 신경재)와 부녀회(회장 김정화)는 지난 6월 21일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교통안전교육 & 우회전 일 단염충 교육'에 참석했다.
- 경기 시흥시 신현동협의회(회장 김태성)와 부녀회(회장 인은숙)는 지난 6월 1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이김치 담가주기' 사업을 실시해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 전달했다.



- 직장-공장 경기 양주시협의회(회장 오수영)는 지난 6월 28일 회천노인복지관에서 '건강하게 여름나기' 사업을 전개하고, 관내 어르신 120여 명에게 냉면을 대접했다.
- 경기 포천시 포천동부녀회(회장 이효순)는 지난 6월 2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사업을 전개하고 관내 경로당 및 취약계층 50여 가구에 열무김치를 전했다.
- 제주 서귀포시 천지동부녀회(회장 김항실)는 지난 6월 17일 노인회관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알뜰 마당을 개최했다.



탄소중립 실천

- 부산 북구 덕천1동협의회(회장 장이근)와 부녀회(회장 임명자)는 지난 6월 11일 관내 공터와 화단에 화초를 심는 환경 정비 활동을 했다.



-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부녀회(회장 이형자)는 지난 5월 25일 별바라기공원에서 탄소중립 에코나눔 마켓을 운영했다.
- 부산 수영구 민락동부녀회(회장 김재순)는 지난 7월 3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수거한 아이스팩 500개를 어매류시장에 전달했다.
- 부산 사상구부녀회(회장 조혜옥)는 지난 6월 5일 모라1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2개동 240가구 어르신에게 김치를 만들어 전달하는 '사랑의 계절김치 담가드리기' 사업을 펼쳤다.
- 대구 서구 상중이동협의회(회장 김호섭)와 부녀회(회장 배명숙)는 지난 6월 27일 주민센터 앞에서 투명페트병 수거 활용법을 홍보하는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첫걸음' 캠페인을 전개했다.



- 대구 달성군 옥포읍협의회(회장 최태영)와 부녀회(회장 신정선)는 지난 6월 2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근 하천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EM(유용미생물군)홍공을 만들었다.



- 울산 남구 삼호동협의회(회장 최석진)와 부녀회(회장 최경숙)는 남운프라자 앞과 궁거리산책로에서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 울산 동구 대송동협의회(회장 홍정홍)와 부녀회(회장 이이화)는 지난 7월 4일 도심 속 녹지조성을 위해 울산대교전망대 진입 도로변에 철쭉 1만여 개를 심었다.



- 울산 울주군 온산읍부녀회(회장 곽수진)는 지난 6월 21일 읍내 불법 폐기물과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수거함 내 쓰레기를 정리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백운동협의회(회장 한영호)와 부녀회(회장 이진숙)는 지난 6월 20일 청사 주변 유휴부지에 여름꽃 1,000개를 심었다.



- 경기 시흥시 배곧1동부녀회(회장 이애란)는 지난 5월 30일 배곧생명공원에서 깨끗한 공원 환경을 조성을 위한 줍깅데이를 실시했다.



- 경기 양주시협의회(회장 이종용)는 지난 6월 9일 국토대청결운동 및 꽃길 조성 사업으로 관내 유휴지에 꽃 3,000개를 심었다.



- 세종 조치원읍협의회(회장 박성규)는 지난 6월 22일 환경정비 활동의 일환으로 국도 제1호 주변 가로수길 제초와 나무 가지치기를 실시했다.

공동체 문화 조성

- 대전 동구 신인동협의회(회장 유영환)는 지난 7월 3일 인동 대한사회복지원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 국수 180kg을 기부했다.
- 대전 중구부녀회(회장 최은희)는 지난 7월 2일 어르신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만든 삼계탕과 찹쌀을 51가구에 전달했다.



- 대전 유성구 학하동협의회(회장 송경섭)는 지난 6월 21일 계산동 농지에서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양배추 500개와 마늘 50점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 광주 서구 화정1동협의회(회장 윤오영)와 부녀회(회장 신금덕)는 지난 7월 3일 직접 만든 반찬과 전복죽을 어르신 250명에 대접하는 '사랑의 전복죽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광주 남구 사직동부녀회(회장 신명희)는 지난 6월 26일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 13명을 대상으로 머리 염색 미용 활동을 펼쳤다.



- 충북 청주시 봉명2송정동부녀회(회장 정문옥)는 지난 6월 28일 홀몸 어르신 40가구에 삼계탕과 밀반찬을 전달했다.
- 충북 제천시 신백동협의회(회장 이운종)와 부녀회(회장 이연자)는 지난 5월 28일 고령동 밀한마음쉼터를 방문해 어르신 100여 명에게 부침개와 떡을 대접했다.
- 충북 음성군 대소면협의회(회장 이정석)와 부녀회(회장 김영미)는 지난 5월 22일 대소장학회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 충남 공주시 중학동협의회(회장 정인묵)와 부녀회(회장 오연옥)는 지난 6월 26일 관내 휴경기지에서 직접 키운 감자 40상자를 관내 경로당과 다문화가정에 전달했다.



- 충남 아산시 신창면협의회(회장 이광영)와 부녀회(회장 김민채)는 지난 6월 20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만든 열무김치를 취약계층 100여 가구에 전달했다.



- 충남 논산시 노성면부녀회(회장 전순남)는 지난 6월 29일 직접 만든 밀반찬을 20여 명의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 충남 청양군부녀회(회장 성수현)는 지난 6월 4일 관내 홀몸 어르신 70명에게 밀반찬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 충남 홍성군 구항면협의회(회장 고인재)와 부녀회(회장 한병분)는 지난 6월 25일 취약계층 50가구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선풍기를 기탁했다.

- 충남 예산군 광시면협의회(회장 임승규)와 부녀회(회장 고부영)는 지난 7월 1일 홀몸 어르신 52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을 펼치고 열무김치와 돼지불고기 등 밀반찬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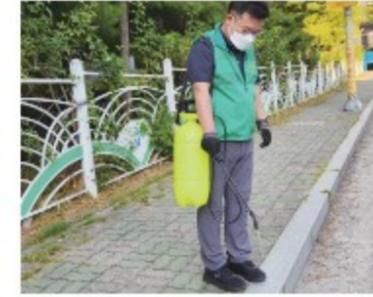
- 경북 안동시 도산면부녀회(회장 권진숙)는 지난 6월 18일 지역 내 경로당 23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안부를 살폈다.

- 교통봉사대 경북 구미시지대(대장 이지현)

대전·광주·충북·충남·경북

- 는 지난 7월 16일 제24회 경북장애인IT페스티벌에서 교통 안내 활동과 교통약자의 도움을 도와주는 봉사를 진행했다
- 경북 상주시 이안면부녀회(회장 채춘화)는 지난 6월 10일 복지관에서 소고깃국, 돼지두루치기 등 반찬을 조리해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40여 가구에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 경북 영천시새마을회(회장 한세현)는 지난 7월 12일 회원 30여 명과 함께 화북면 수해 지역에 찾아가 수재민 수해복구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 대전 중구 목동협의회(회장 김진웅)는 지난 6월 27일 관내 방역 및 환경정화활동을 하는 '새마을 싹쓰리 줍깅데이'를 전개했다.



- 충북 제천시부녀회(회장 김용자)는 지난 6월 12일 새마을회관 주변 코스모스 꽃길 제초 작업과 기후 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

- 충남 공주시 유구읍협의회(회장 박천수)는 지난 6월 19일 재활용 선별장에서 '숨은 자원 찾기' 사업을 통해 농경지와 각 가정, 마을 공터 등에 방치된 재활용 가능한 자원과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했다.

- 충남 아산시 음봉면협의회(회장 김근식)와 부녀회(회장 박옥순)는 지난 6월 10-11일 아산온천 외 5개소에 여름꽃을 심었다.

- 충남 논산시 온진면부녀회(회장 송순임)는 지난 6월 27일 관내 버스 승강장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 스티커를 제거했다.



- 충남 서천군 마서면협의회(회장 윤기원)와 부녀회(회장 김정자)는 지난 6월 19일 가정, 농경지 등에 방치된 페비닐, 폐농약병, 종이, 고철, 유리병 등 약 5톤의 숨은 자원을 수거했다.

- 충남 청양군 청양읍협의회(회장 정찬섭)와 부녀회(회장 이상희)는 지난 6월 10일 버스 승강장 35개소를 청소했다.



- 경북 구미시 선주원남동협의회(회장 황정모)와 부녀회(회장 서영희)는 지난 6월 19일 관내 배수로와 산 밑의 환경을 정화하는 줍깅데이를 실시했다.



- 경북 문경시 문경읍협의회(회장 윤정훈)와 부녀회(회장 양옥순)는 지난 7월 1일 관내 폐농약병을 수거하고 분류했다.



탄소중립 실천

- 대전 동구 산내동부녀회(회장 김향자)는 지난 6월 27일 새마을회관에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모으기 사업을 펼치고 155kg 옷을 수거했다.



공동체 문화 조성

- 전북 정읍시새마을회(회장 이경연)는 지난 6월 26일 정읍애육원과 신태인입에 있는 천사의 집에 직접 수확한 감자 30상자를 전달했다.
- 전북 완주군 경천면부녀회(회장 이명례)는 지난 6월 19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조리한 삼계탕 200여 그릇을 관내 경로당과 소외계층 20여 가구에 전달했다.
- 전북 장수군새마을회(회장 빈중옥)는 지난 5월 30일 홀몸 어르신 및 취약계층 100가구에 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의 김치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 전남 목포시 삼향동부녀회(회장 신영숙)는 지난 5월 22일 열무김치와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했다.



- 전남 여수시 월호동부녀회(회장 정의심)는 지난 6월 7일 주민센터에서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을 실시해 지역 내 소외계층과 홀몸 어르신 100가구에 열무김치를 전달했다.



- 경남 진주시 신안동협의회(회장 조도희)는 지난 7월 2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관내 홀몸 어르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 경남 거제시 거제대새마을동아리 새무르나래(회장 여현우)는 지난 7월 7일 사등면협의회(회장 최형철)와 사곡삼거리 새마을 군집기교체를 진행했다.



- 경남 통영시 봉평동부녀회(회장 서미선)는 지난 6월 18일 '사랑의 반찬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밑반찬 4종을 관내 취약계층 15가구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 경남 창녕군 장마면부녀회(회장 김숙자)는 지난 7월 1일 열무김치를 만들어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40가구에 전달했다.
- 경남 남해군 창선면협의회(회장 서석완)와 부녀회(회장 이미혜)는 지난 6월 25일 순수 마련한 미숫가루 160개를 32개 마을 경로당에 전달했다.

- 경남 하동군 양보면협의회(회장 김태웅)와 부녀회(회장 김봉순)는 지난 6월 28일 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150만 원 상당의 여름 의류 100벌을 전달했다. 하동군협의회(회장 한기식)는 지난 6월 25일 고전면새마을농원에서 단호박 수확을 돕는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했다.



- 경남 산청군 시천면부녀회(회장 강정애)는 지난 6월 11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만 원을 기탁했다.
- 경남 거창군 남상면협의회(회장 이두희)와 부녀회(회장 권남숙)는 지난 5월 31일 홀몸 어르신 50가구에 반찬을 전달했다.
- 경남 합천군 대병면협의회(회장 송준웅)와 부녀회(회장 이금희)는 지난 6월 26일 관내 어려운 세대 2가구를 선정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펼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 장판 교체와 청소, 전기시설 점검 등을 실시했다.



전북·전남·경남



탄소중립 실천

- 전북 완주군 비봉면부녀회(회장 이인숙)는 지난 5월 16일 공원과 생활체육공원에 경관 개선과 환경정비를 위해 3,000여 개의 모종을 심었다.
- 전북 부안군 행안면협의회(회장 박한철)와 부녀회(회장 강영재)는 지난 6월 10일 바닷가 모래사장, 소나무 숲 아영장, 공영 주차장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 전북 진안군새마을회(회장 김문옥)는 지난 6월 11일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이불 등을 수거하는 숨은자원 모으기 활동을 전개했다.
- 전남 목포시 원산동부녀회(회장 김은주)는 지난 5월 13일 새마을 창고에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을 수거해 정리하는 숨은 자원 모으기 활동을 실시했다.



- 전남 여수시새마을회(회장 이동근)는 지난 6월 바다의 날을 맞아 묘도동 해안가 일대에서 해양쓰레기 2톤 수거하는 청결 활동을 펼쳤다.

- 경남 진주시 성북동부녀회(회장 김현숙)는 지난 6월 17일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알뜰 나눔 장터를 열고 친환경 주방세제 만들기 활동과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 무료 배부 등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렸다



- 경남 거제시새마을회(회장 권수오)는 지난 6월 5일 주민센터에서 탄소중립 실천운동의 하나로 35,000여 개의 아이스팩을 세척하고, 이 중 29,000여 개를 고현상인변영회, 장목수산센터 등에 배부했다.



- 경남 창녕군 창녕읍부녀회(회장 서영옥)는 지난 5월 23일 명덕초등학교 앞, 솔터사거리, 경찰서 주변 및 인근 도로변 등에 꽃을 심는 '여름맞이 꽃심기' 사업을 펼쳤다.



- 경남 남해군부녀회(회장 정민숙)는 지난 5월 21일 새마을비누공장에서 폐식용유를 활용한 저공해 재생비누 900장을 만들었다.



- 경남 하동군부녀회(회장 장영숙)는 지난 6월 21일 적량면 공설운동장에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모으기 경진대회'를 열고 옷 20여 톤을 수거했다.



- 경남 산청군 시천면협의회(회장 이승영)와 부녀회(회장 강정애)는 지난 5월 28일 덕천강변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50리터 봉지 100개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거했다.
- 경남 거창군 거창읍협의회(회장 신동은)와 부녀회(회장 전숙향)는 지난 6월 5일 37개 마을을 순회하며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5톤을 수거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새벽종> 05+06월호 독자 의견



김지연

새벽종을 통해 우리 지역의 소식을 듣게 되니 재미있네요. 송기전에 가끔 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꿔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저 자연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두고 지켜볼게요. 인천 소식도 많이 담아주세요.



박순화

서로에게 건네는 새마을가족의 칭찬 메시지가 좋았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죠. 진부한 말이겠지만, 누군가가 애정을 듬뿍 담아 건네는 말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더욱이 나와 함께 고생하는 동료가 건네는 칭찬이라면 더 기쁜 법이지요.



강주찬

지구촌새마을운동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우간다 사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50여년 새마을운동으로 오늘날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처럼, 이들도 언젠가는 남부럽지 않게 잘사는 나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그들의 뜨거운 열정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조재호

'자연도, 사람도 웃는 친환경 나들이'를 너무 잘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까운 곳으로 피크닉을 떠나거나, 숲을 찾아가는 계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을 지키는 일이겠지요. 올해에는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LNT 일곱 가지 지침을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감은 다음 호에 소개되며, 선정되신 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SNS 구독하고 활동소식을 빠르게 만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이웃추가

